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 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장 소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건

상정된 안건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건 1

(16시01분 개회)

○의정팀장 박애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애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 제1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진행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 진행순서는 참석자 소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안건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지금 오고 계신 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은 ○○○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분이면 과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원은 되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출장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 위원, ○○○ 위원 두 분은 안전심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안건 제1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계획서상 공무국외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관 및 경비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격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지역현안 해결과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등 목적에 맞는 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김영진 위원입니다.

심사번호 제1호 대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쓰레기소각장 시설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전 서류 1페이지입니다. 대상자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14명과 상임위원 등 7명 총 21명으로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6박 9일의 일정으로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연수목적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분석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 추진 쓰레기소각장 건립부터 탄소를 최소화하는 처리방법, 도시디자인 민관학 협력으로 스타트업 유치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전문영역과 경험을 지닌 여러 의원들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단순한 결과물 제출이 아닌 탐방결과를 시민, 관련단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미텔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쓰레기소각장 코펜헐, 스타트업 500여 개가 입주하고 있는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 친환경 생태 국제도시인 베스트라함넨 지구, 친환경 선진 사례 지역과 도서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관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2일차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최대 풍력발전단지인 미텔그룬덴 해상풍력단지, 그린하우스인 돔오브비전, 수질오염 개선 후 운하를 활용한 공공수영장인 하버바스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선진기술 조사, 풍력발전협동조합 구성·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3일차에는 코펜하겐의 쓰레기소각장이자 시민여가공간인 코펜힐, 미래형 녹색도시 외레스타드 친환경 건축물인 8하우스를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부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처리방법, 외레스타드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계획에 대해 연수하고자 합니다.

4일차에는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말뫼로 이동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의 스타트업 육성, 창업인큐베이터 등에 대해 알아보고, 릴라광장 등을 통해 순천의 시민광장 조성 방향 등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5일차에는 말뫼의 베스트라함넨 지구 BO 01과 랜드마크인 터닝토르소, 말뫼의 시립도서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BO 01은 베스트라함넨을 국제적으로 알린 계기가 됐고 1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교통 등 유럽의 대표적인 에코빌리지입니다.

다음 6일차에는 말뫼에서 스웨덴 예테보리로 이동 슬로츠코겐 공원, 예테보리 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슬로츠코겐 공원은 도심공원의 역할과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은 곳에 함께 있는 예테보리 도서관이 어떻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다음 7일차에는 예테보리의 국립과학관 유니버세움, 린홀먼사이언스파크, 하가지구를 방문하여 국립과학관에서는 직업체험 콘텐츠 사례, 린홀먼사이언스파크에서는 미래차 기술개발 클러스터 단지에 대한 추진사항, 하가지구 광장 조성 등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다음 8일차와 9일차에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총경비는 의원 자부담 1765만 2600원을 포함해 9500만 원으로 1인 446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 일단 출장개요에서 지금 보니까 6박 9일인데 비행기에서 자는 날이 3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 괜찮으시겠죠?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비행기에서 오랫동안 타면 상당히 힘들 건데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안전문제도 잘 챙기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여기 여행하고는 다르게 지금 그쪽 지역은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수 중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세 있으신 3일을 비행기에서 저희들이 타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거의 6개월, 4개월을 발로 뛰면서 체력을 단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을 나이 드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재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체력은 아마 강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충분히 다녀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항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때 복유럽은 아직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저희들이 아직 방안은 안 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질의 중에 ○○○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위원장 ○○○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 제가 일정을 쫓 봤었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을 봤는데 굉장히 이번에 준비를 잘해 주셨고, 각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직업체험관이라든가 국립과학관을 이렇게 방문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순천 잡월드만 해도 지금 요즘 많이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탈피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직업험관으로 해서 우리 순천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직업체험관을 통해서 요즘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또 그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업체험관과 탄소중립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우리 순천이 좀 더 이렇게 잡월드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선한 프로그램 하나를 좀 계획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 만들어서 가서 보고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 잡월드에는 이번 연수 일정과 틀리게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이 체험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가서 체험관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 와서 우리 직업 잡월드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과 미래를 향해서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질문하시죠. 혹시 이게 지난번에 한번 계획이 됐다가 취소된 건 맞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취소됐던 경위를 조금 누가, 우리 문경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누가 설명해야 좋을지, 아,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이 일정을 심사위원회 보고 받고 저희들이 일정을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약간 마지막에 물려있었습니다.

○위원장 ○○○ 며칠 자였고 며칠날 이태원 사고가 나고 그걸 혹시 아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애도기간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이었는데 저희들이 11월 7일 자로

떠나는 일정으로 심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10월 5일 날 끝나는 거였고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11월 5일 날로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 ○○○ 애도기간은 11월 5일 날로 끝나는 거였고, 국가가 정한 거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저희들이 11월 7일 날로 연수일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받고 일정을 계획했던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나는 일정이 약간 아직도 애도하는 분위기여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이걸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일정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때 11월 7일 날 가는 게 원래 계획은 그보다 좀 더 빨랐는데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늦춰져서 계획이 11월 7일 아니었던가요, 혹시?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처음부터 11월 7일...

○위원장 ○○○ 그때 누가 중간에 가는 분이 교체되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11월 7일 날로 심의위원회를 받았고요.

○위원장 ○○○ 아, 그랬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받고 뒤에 일정상 못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가신 분들이 거기를 참석하는 걸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

○위원장 ○○○ 예, 그러니까 일정은 똑같았다는 말씀...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 의원님이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연수 계획을 심의를 받았는데 뒤에 다시 7일 날 가는 걸로 재심의를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도기간이 끝나긴 하고 애도기간에 걸쳐 있진 않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취소를 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장 ○○○ 취소과정에서 이게 계획이 다 돼 있던 걸 취소하면 위약금 같은 걸 물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약금은 인당 200으로 일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위원장 ○○○ 1인당 200만 원씩 위약금을 물

었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장 ○○○ 그때 우리 여행 총경비가 얼마였을까요? 1인당으로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1인당 그때 이번에 추가된 공무 빼놓고 5명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를 안 해서 약간...

○위원장 ○○○ 예예.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지금 경비에서 5명을 뺀 데다가 ○○○ 의원의 경비를 뺀 나머지가 아마 같을 겁니다.

○위원장 ○○○ 예, 대략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총경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었다든지 이런 비율 정도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서류가 저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이 앞전에 11월 7일자에서 11월 15일 9일간 가는 일정에는 6787만 6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 6787, 예.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6787만 696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그때는 총 16명이 심의를, 공무 연수 16명이 가는 걸로 심의위원회 통과됐었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국외 여행 건은 통과가 돼서 잘 다녀오신 거죠? 별문제 없이.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그 뒤에 가신 도시건설위원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 예, 그리고 애도기간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거기는 12월 정도에 갔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애도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한 것은 그래도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잘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

○위원 ○○○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앞으로는 1시간 전에 알람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번에 이 연수가 계획이 되었다가 애도기간과 맞물려서 그때 취소를 한 것이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취소를 했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200만 원의 위약금을 개인당 물었다는 내용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계획은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 뒤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 관련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다녀왔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내나 그때 그 당시에 갔던 내용과 지금 잠깐 봤는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번 출장을 진행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순천시의 쟁점인 소각장 문제와 그다음에 시민광장과 정원과 도서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8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함께 한번 새로운 지역에서 싱가포르, 일본보다 유럽 쪽에 가서 그들만의 새로운 생활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이 연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 아니, 이 앞전에는 총예산이 6000 얼마였다 그랬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6787만 6000원이었습니다.

○위원 ○○○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이번에는 9000.... 심의자료 뒤쪽에 보시면, 아, 제일 앞장에 보시면....

○위원 ○○○ 9500....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9531만 1640원입니다.

○위원 ○○○ 9500.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그럼 거기에서 인원이 지금 추가된 겁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인원이, 잠깐만요.

○위원 ○○○ 인원도 추가됐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인원도 추가됐고요. 그리고 지금 북유럽에 장애인버스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버스를 안 타는 대신에 일비로 50%를 삭감하고 렌트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이 차량 렌트를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생겼습니다.

○위원 ○○○ 이 앞전에 1인당 200만 원 위약금 문 것은 지금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그렇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이번 여행이 상당한 금액인데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2월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저희들이 국가정원도 있고 의회도 국가정원 할 때 거의 국가정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까지의 모든 일정을 연수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겨울에 가다 보면 북유럽이 해가 짧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3월 초로 앞당긴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박람회 기간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박람회 기간을 피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이면 북유럽이 해가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받고 방문하는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저희들이 앞당긴 이 연수기간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 지난번에 위약금을 무실 때, 지금도 이 경비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꽤 높습니다. 1인당 4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순천시의 부담은 320, 자부담은 반올림하면 1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위약금을 물 때도 자부담 비율을 좀 고려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전혀 위원님들,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출장단의 아무런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긴 했죠, 전적으로. 그야말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약간이라도 위약금에도 자부담이 들어갔었다면, 그렇다 그러면 오늘 얘기가 조금 더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랄까 그런 생각은 잠깐 좀 듭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답변드려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예.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약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었으면, 논의를 했었으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지금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해서 위약금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연수 가는 것을 많이 반대했던 시민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책도 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연수는 꼭 가야 되는 연수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 ○○○ 제가 위원장인데 회의 주재를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을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 제가 처음 유럽 출장갔을 때 저희들이 봐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 해서 다 해서 11월 7일 날 간 거로 다 이미 결정됐어 가지고 그때 가 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약금 문제라든가 그 문제 외에는 이미 전부 다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결된 상태를 그때 분명히 우리는 가 결했지만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이미 가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출장을 좀 다녀오고, 또 가장 우리가 2023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 기회에 순천을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탄소중립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위원 ○○○ 위약금 문제에 대한 질문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그런데 조금 공교롭게 위약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진짜로?

당시에 위약금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당시?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위약금은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일단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 상호 논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없었던 걸로 인정합니다. 저와 행자위 위원장님 그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된다, 저희들 자비로 위약금 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비 규정에 위약금 문제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한 부득이한 상황에는 그 근거로 규정으로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인당 60만 원씩 각자 부담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건가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누가 결정...

○위원 ○○○ 그러긴 하지만 위약금이라는 게 지금 세금으로 위약금을 물었었고 3200만 원이란 돈을 12월 말에 물었고, 불과 지금 한 달 반 만에 똑같은 일정 이 추진이 됩니다. 물론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상에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게 그때도 취소됐던 거는 시민들의 사회적 분위기였잖아요. 정서, 공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위약금을 묻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것도 3200만 원이라는 돈 세금을 물었고, 위원장님께서도 혈세 낭비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똑같은 일정으로 또 추진한다? 거기다가 5명을 추가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 시기가 이런 부분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이고요. 3200만 원이란 돈이 쓰였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결정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위원 ○○○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 예, ○○○ 위원님.

○위원 ○○○ 토론의 내용을 2가지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경위 의원들과 행자위 의원들이 가는 탄소중립 문제 실현, 그리고 친환경

경 재생 에너지 쓰레기소각장 문제, 생태자원 이 문제 관련해서 국외출장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토론 하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문경위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성원이 되어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좀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출장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할 수 있으나 과정에 대한 경위, 또 어떤 입장에서 이것이 정리됐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여기서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 별도로 의견을 나누라는 말은 어떤 말씀...

○위원 ○○○ 별도로 따로 취재 또는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신 거고, 또 의장님도 계신 거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 ○○○ 저는 지금 취재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 ○○○ 이야기 제가 좀 더 할게요.

○위원 ○○○ 예.

○위원 ○○○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가지 말자고 제안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에서 의회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한 토론 그리고 고민들이 있는 결정이었었고, 그래서 여기 가고자 하는 내용이 순천시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중심이어서 다시 한번 제출된 내용이었고요.

이후 여기 가고자 하는 지역은 몇몇 개인 의원들이 제출된 내용이 아니라 순천시가 풀어야 될 주요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제안하신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위약금의 일부가 있다는 것도 의원들 전체가 전혀 몰랐었고, 저도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겠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전체가 어떤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천시 국외출장에 책정된 예산에서 이것이 위약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어떤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간 거였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은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나 과정이나 또 일정한 평가 이런 부분은 각자가 좀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 추가로 근데 저는 조금...

○위원장 ○○○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하시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약금을 여쭙봤냐면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가결했던 거에 대해 통과됐던 게 전면 취소가 되면서 발생했던 위약금이잖아요. 저희 위원분들도 그 경위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위를 정확하게, 저도 토론이 된지 안 된지 몰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렀다, 토론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를 여쭙봤던 거 정확하게 저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쭙봤던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 맥락과 다르지는 않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정에 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정이 지난번에 가결되었던 일정에서 변동된 건 전혀 없나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거의 90% 이상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10%는 어떤 건가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10월엔가 심사위원회 보고했을 때는 거의 탄소중립으로 해서 코펜헐과 코펜하겐에 대해서 거의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업체험과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린홀먼사이언스에 있는 미래차 기술개발 클러스터 단지 거기가 약간 삽입됐습니다.

○위원장 ○○○ 예, 사이언스파크 이게 전에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지금 이게 메일이 다 보내져 있는 상태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 그러면 이 코펜헐과 이쪽 3월 1일 자 일정에 있는 코펜헐 여기는 18명만 가시나요, 아니면 21명 다 가시나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코펜헐 전부 21명이 다 갑니다.

○위원 ○○○ 근데 왜 메일에는 18명이 간다고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우리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서에 넣을 때 서류를 전문위원께서 오류로 그쪽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 ○○○ 메일 몇 건이 다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게 오류인가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그때 한 번에 넣었기 때문에 오류가 났을 겁니다.

○위원 ○○○ 예,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지 여기서 지금 3명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메일인데 방문객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깔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답변 거기에는 저희들이 21명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 예, 그거는 저 봤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담당자들에게 보낸 미팅 메일을 보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나머지 3분은 다른 일을 가서 하시는 건지, 일정을 조율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잘못된 거죠?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일정은 21명이 함께 동행합니다.

○위원 ○○○ 예.

○위원장 ○○○ 위원장님, 시도지사협의회는 여기 일정을 저쪽 스웨덴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저희들이 일정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기관방문은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 ○○○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들은 여쭙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박람회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10월 31일 이후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 하셨는지.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

니다, 우리 ○○○ 위원님께.

○위원 ○○○ 해가 짧아서...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11월에서 12월에는 북유럽 쪽이 해가 짧습니다. 10시 넘어서 해가 뜨고 3시, 4시 정도면 해가 집니다, 영국이랑. 그래서 시간적인 저희들이 방문일정이 너무 어두워서 약간의 방문일정과 계획이 약간 착오가 있을 계획을 갖고 약간 봄에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 그럼 지난번에 11월 7일에 가기로 했던 것도 잘못된 계획이었네요?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그때도 약간 저희들이 일정이 늦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위원 ○○○ 예.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그때 당시도 해가 짧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 다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기획을, 한번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 예.

○위원장 ○○○ 예, ○○○ 위원님.

○위원 ○○○ ○○○입니다. 위원님 비롯해서 계획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저는 처음 봤고요, 지난번에 취소된 계획서 못 봤으니까. 근데 꽤 신경 쓰시고 굉장히 고심하신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14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7명이나 가는 이렇게 대규모 연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규모 연수단이 가면서 또 주제가 이렇게 보면 7개 주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시겠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마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나 일반인들 의식은 해외연수라고 하는 걸 단순히 노는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 우리 사회가 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더 없애 주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서나 이런 거에도 7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의원님들이 14분이고 공무원들이 7분인데 그러면 각각의 공무원님들이 하는 그 역할들을 이런 것들을 팀별로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해를 없애는 그런 계획서를 제

출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시고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기관 섭외나 이런 것들은 꽤 신경 쓰셔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기관들 섭외하시고 좋은 장소들 가서 아마 정책 연구나 연수에 큰 보탬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시기 전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가시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질문해야 될 사전질문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시를 홍보하는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홍보물품 같은 것도 미리 좀 상세하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녀온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에 담기면 의원님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도 이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게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영진 예, 꼭 참고해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공무원 국외출장의 경비는 원래 의회 예산으로 1인당 얼마씩 잡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일하게 어떤 사업성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이 예산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선진지를 보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회가 설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위원회를 지금 전에도 해봤고 이번에 2번째 하는데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정말 이걸 내가 왜 맡았을까 하는 후회도 했고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통으로 짐을 진다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영진 문화경제

위원장님은 나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 시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국외출장을 다녀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 1년에 한 번입니까?

○위원장 ○○○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이 지방재정이라서 제가 매년 시군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분석이라는 결행안부에서 하는데 거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표 하나가 전체 총예산에서 의회 경비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의회에 대해서 까다롭게 약간 한다는 저는 그런 느낌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간, 근데 또 그런 것들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천이 그렇게 의회 경비 비율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하여간 순천은 나름대로 의회가 의회로서 기능을 좀 잘하는 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기서 사전에 논의를 해보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그냥 한 말씀씩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 ○○○ 1년에 한 번 가는 국외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대규모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갔던 것을 재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 ○○○ 새로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위원 ○○○ 예?

○위원 ○○○ 새로운 장소였으면...

○위원 ○○○ 같은 곳은 아니고.

○부위원장 ○○○ 같은 곳은 아니고.

○위원 ○○○ 같은 주제라는...

○위원 ○○○ 거의 같은 곳이죠.

○위원 ○○○ 가지는 않았어요.

○부위원장 ○○○ 일본하고 싱가포르니까 틀리죠.

○위원 ○○○ 아니, 저번에 우리한테 냈던...

○위원장 ○○○ 그러니까 계획이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 계획은 원래 똑같이 한다 했어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내서 200만 원 과태료를 냈으면 다녀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가는 것인데 다른 데를 얼마든지 세계에 갈 만한 곳이 상당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를 또 간다….

○부위원장 ○○○ 그때 우리가 이거 가결해줬어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가결을….

○부위원장 ○○○ 가결해 줬으니까….

○위원 ○○○ 가결을….

○위원장 ○○○ 아니,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그냥 꼭 하시죠.

○위원 ○○○ 가결을 해줬는데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다녀온 것이다….

○위원 ○○○ 저는 공무국외 굉장히 자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으면서 학교를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요. 여러 나라의 학교들 많이 가봤습니다. 이쪽 나라 한 군데만 보는 거 이게 보면 배워지는 게 있겠지만 우리 문화적으로도, 저는 사회 전공인데요. 비교문화 이런 것들이 있듯이 많이 보면 볼수록 시각이나 식견이나 이게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학교를 봤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저도 많이 다녔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선생님이 뭐하길래 학교를 바깥에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데 분명히 놀면서 보는 거 자체에 배움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 학교에 나가서 얘기해보고 학교 운영되는 거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가서 배우고 온 걸 정확하게 시에 반영하도록 이걸 요구해야지 자꾸 나가는 걸 막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나갔다 와서 놀지 말고 정확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와서 그걸 그대로 실천해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 위원님.

○위원 ○○○ 제가 작년 12월 말에 모든 예산 정리해놓고 도건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예전에 여행 갔다 오는 분위기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녁 10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소에 들어와서 바로 녹초가 되신 의원님들도 있었고.

특히 일본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제로화돼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건축자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용해를 시키면.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선진적인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와야지만 우리나라도 개발이 되고, 지금 우리도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뭔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것을 만들어야 되지 10년 전, 20년 전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여행 삼아 여행사에서, 우리 연수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기들이 어떤 여행지 여행코스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코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시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이 아니고 정말 연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 갔다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 저도 연수로 해외를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도 학교마다 기관 방문하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봤더니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부위원장 ○○○ 타이트하게 연세 드신 분 없어요.

○위원 ○○○ 저는 기자님들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위약금 200만 원이 사실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 됐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의원들이 안 가게 되면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또, 사실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이것 가는 것과 별개로 인식

하고 취재해야 될 부분 있으면 취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 의원님과 ○○○ 의원님이 안 가셨나요?

○위원 ○○○ 순천을 지켜야 될 일이 있어서 저하고 ○○○ 의원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 저번에 심의한 데는 갔다 와서 당연히 좋았겠지만 저도 작년에 심의할 때는 순천의 현안 문제점이 많은 소각장이나 그런 것을 간다 그래서 심의에 동의를 찬성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못 갔던 부분이라 이번에도 간다는 것은 처음에 취지는 좋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만약 뭔 일이 나서 또 못 가면 또 이게 시의회에서 시민 혈세를 또 낭비를 하나요?

○위원 ○○○ 이번에 꼭 가야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모르죠. 저번에도 당연히 같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위원 ○○○ 지금 계획상황이 어떻게...

○위원 ○○○ 이것은 계약이 여기서 승인이 나와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위원 ○○○ 계약할 때 너무, 200만 원이 거의 몇 %입니까. 그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위원장 ○○○ 근데 아마 거기는 다 비행기표도 예약을 다 해놨을 거고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놨을 거고 아마 여행사에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위원 ○○○ 예약이 안 된 거죠?

○위원 ○○○ 시민들한테 정말 이거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욕 많이 먹어요. 위유성으로만 보는 시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일단 먼저 놀러간다 딱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어있어요.

○위원 ○○○ 저번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랬고 공무출장을 갔다 오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일단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긴 하는데 이왕이면 지역의 대중언론매체에 다녀온 출장보고서 보고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장을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오신 위원회에서 순천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단한 정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해서 가면 시민들이 의원들 해외출장에 관련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이거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시민들과 토론회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기회를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위원 ○○○ 이 앞전에 일본 그 전에부터 작년년부터 나왔던 말인데요. 이게 다녀오시고 나서 보고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여기 참석하신 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 ○○○ 지켜지지 않았네요. 이번에 꼭 지키십시오.

○위원장 ○○○ 혹시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박애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출돼서 검증과정, 그다음에 보완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0일 이내 본회의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회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다 개별로 우편으로 보내 주신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애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 회의 때?

○의정팀장 박애란 회의 전에 이번처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 보고서를 채택하는 거죠?

○의정팀장 박애란 예, 맞습니다.

○위원 ○○○ 그러면 보고서 채택이 되면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의정팀장 박애란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 아니, 저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만 별도로...

○위원장 ○○○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라도 다녀오신 의원들 중에서 누가 연수기 이런 것들을 한번 올린단든지 그런 방향도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위원장 ○○○ 아니, 그러면 또 의원님들 본인이 될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의정활동에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위원 ○○○ 예,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의회 홈페이지 이런 거 본회의장 말고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알리는 것 이런 권고사항을 추가...

○위원장 ○○○ 혹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이거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위원 ○○○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고 실제로 너무...

○부위원장 ○○○ 의원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해서...

○위원 ○○○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 ○○○ 여기서는 가결인지 부결인지...

○위원장 ○○○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래도 의견들 나누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이걸 써서 내게 돼 있죠, 의결서를?

(「예」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심사의결서에 가부를 결정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깜박했습니다. 정회 상태입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제1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우리 참석위원 수는 9분이십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토록 돼 있어서 6명을 넘으면 가결인데 집계결과 찬성 7, 반대 2 이라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